

## [별첨] 최이우씨의 반인권[동성애 혐오 언행 목록

### 1. 도덕 교과서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며 재심의를 수정을 촉구하였다.

최이우씨는 2013년 6월 28일 도덕교과서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검정본부와 출판사 측에 재심의를 수정을 촉구하는 미래목회포럼의 성명서에 서명하였다. 이 성명서는 “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성애를 고등학교 일부 도덕교과서가 편향되게 기술할 뿐만 아니라,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”고 주장하였다. 위 성명서에서 구체적으로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교과서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.

“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,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”

“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”

“한 사람이 특정한 성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1973년 미국정신과의사협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”

“동성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다”

### 2.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였다.

최이우씨는 2013년 3월 28일 언론의 칼럼<sup>1</sup>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“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안!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.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,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 속의 그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

---

<sup>1</sup> 'CTS 칼럼 교회가 말한다' - 최이우 목사, 2013. 03. 28.

다.”

### 3. “동성애는 죄”라고 발언하였다.

최이우씨는 2014년 11월 20일 한 심포지움에서 “동성애는 죄”이고 “다만, 예수님께서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‘정죄하지 않는다’는 것처럼, 나 역시 (동성애자들을) 정죄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<sup>2</sup>

### 4.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미래목회포럼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.

미래목회포럼은 300여명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,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운동을 하였고, 동성애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. 최이우씨는 이 미래목회포럼의 부이사장, 상임이사,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. 미래목회포럼이 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.

(1) 미래목회포럼은 2012년 3월 15일 국회의원에서 기독교 유권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를 담은 「기독교유권자실천행동지침」을 발표하였다. 그런데 이 「기독교유권자실천행동지침」에 “학생인권조례<sup>3</sup>와 수쿠크법 지지자는 안 됨”, “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후보지지” 등이 포함되어 있다.<sup>4</sup>

(2) 미래목회포럼은 「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」에 참여하여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. ‘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」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항의 전화를 거는 것을 비롯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 낙

---

<sup>2</sup> 크리스천투데이, “최이우 목사 “인권위 사퇴 압박, 일종의 통과외레”, 2014.11.21

<sup>3</sup> 학교내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이다.

<sup>4</sup> 교회와 신앙, “강단에서 편향된 공적 지지 하지 말라 - 미래목회포럼, 4.11총선 기독교유권자 행동지침 발표”, 2012. 03. 15.

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였다.<sup>5</sup>

(3) 미래목회포럼은 「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」에 가입하였다. 이 「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(이하 “종편위”)」는 기자회견에서 “... 동성애 인정으로 ‘창조 원리’를 훼손하고 사회 공동체를 파괴 ... 할 수 있다”고 하여 동성애를 비판하였고, “이미 존재하는 ‘국가인권위원회법’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구태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사회 혼란 가중의 소지가 있다”며 “동성애를 비롯한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내용을 차별의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기독교인들을 잠정적으로 범법자로 만들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<sup>6</sup>

(4) 미래목회포럼은 2011년 8월 7일 공중파인 KBS의 드라마 ‘클럽 빌리티스의 딸들’이 “동성애를 조장한다”며 비난하면서, “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어렵고, 질병을 확산시키고 자녀출산을 막아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. 누구든지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회병리현상을 키우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”고 밝혔다.<sup>7</sup>

(5) 미래목회포럼은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(DOMA)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“다수 국민의 건전한 정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결정”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.<sup>8</sup>

---

<sup>5</sup> 서울신문, “개신교 “차별금지법, 양심·종교의 자유·행복추구권 침해 소지”” 2013-03-22

<sup>6</sup> 들소리신문, “차별금지법안, 교회·사회에 악영향 - 교계, 동성애 인정 등 우려하는 비판 목소리 높아”, 2013.03.20

<sup>7</sup> 뉴스판, “기독교 시각에서 본 'KBS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' -공중파 최초 여성 동성애자 문제 다뤄...”, 2011.08.10

<sup>8</sup> 호주국민헤럴드, “동성결혼자 권리 확대 쫓지 못할 오판”, 2013. 07. 27.